

## ‘인간 새’들이 연출하는 예술, 스키점프

### 밀라노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동계올림픽의 꽃’ 스키점프는 인간이 기구 없이 가장 높고 멀리 나는 종목이다. ‘인간 새’가 하늘을 가르는 장면은 예술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대중들에게는 영화 ‘국가대표’의 소재로도 친숙하다.

인기 있는 종목인 만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펼쳐질 스키점프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

스키점프는 제1회 동계올림픽은 지난 1924년 프랑스 샤모니 대회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1960년까지 남자 개인전 한 종목으로 진행됐으나, 1964년부터 20년간 라지힐과 노멀힐 개인전으로 나뉘었다.

1988년 캘거리 대회부터는 남자 단체전이 신설됐고, 2014년 소치 대회때 여자 개인전이 첫선을 보였다.

2022년 베이징 대회 때 남녀 혼성 단체전이 시작됐으며, 이번 대회에선 여자 라지힐 개인전과 남자 슈퍼 단체전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에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선 남녀 라지힐 개인전, 남녀 노멀힐 개인전, 혼성 단체전, 남자 슈퍼 단체전까지 총 6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수들이 경쟁한다.

스키점프는 거리, 스타일(자세)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점프대마다 설정된 기준점(K-포인트)에 도달하면 60점의 기본 점수를 얻고 이를 초과하거나 부족할 때마다 1m당 일정

이번 대회에는 2개 종목 신성

총 6개의 금메달 놓고 경쟁해

전설들 은퇴로 한국 출전은 ‘0’

점수(노멀힐 2점·라지힐 1.8점)가 가깝된다.

힐 사이즈(HS) 110~149m는 라지힐, HS 85~109m는 노멀힐로 분류한다.

이번 대회 스키점프는 이탈리아 북부의 발디피에메 지역에 위치한 프레다초 스키점프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프레다초의 스키점프 경기장에서 가장 큰 점프대는 HS 141m(K-포인트 128m), 두 번째로 큰 점프대는 HS 107m(K-포인트 98m)로 각각 라지힐, 노멀힐에 해당한다.

스타일(자세)은 심판 5명이 비행 중 스키 안정성, 신체 균형, 텔레마크 착지 자세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긴다.

각각 20점 만점으로 채점하며, 최고와 최저점을 뺀 3명의 점수를 거리 점수와 합산한다.

개인 종목은 먼저 트라이얼 라운드를 실시해 대회 순서를 결정한다.

결승전은 총 두 번의 점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점프에선 50명 전원이 참여하고 두 번째 점프는 첫 점프 상위 30명만 도전할 수 있다.

최종 순위는 두 점프의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혼성 단체전에선 각 국가에서 여자 2명, 남자 2명으로 구성된 팀을 선발한다.

4개 그룹으로 나뉘어 두 번의 점프를 뒀다. 첫 점프 후 상위 8개 팀이 마지막 점프를 한다.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프의 거리와 스타일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남자 슈퍼 단체전에선 각 국가의 4명의 선수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출전한다.

트라이얼 라운드와 두 번의 결선 라운드를 포함해 총 3번의 점프를 한다.

역시 두 번째 점프에선 상위 8개 팀을 나누고, 그들이 마지막 점프를 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다른 스키 종목처럼 스키점프도 유럽과 미국이 강세를 보인다.

남매인 도멘 프레우츠, 니카 프레우츠(이상 슬로베니아) 등이 이번 대회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번 대회에 단 한명도 출전하지 못한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동계올림픽에 나설 태극전사 71명을 발표했는데, 스키점프 종목은 ‘0’이었다.

최흥철, 최서우 등 전설들이 은퇴하면서 한국은 현재 유망주 육성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 스키점프는 한국 시간으로 내달 7일 여자 노멀힐 개인전으로 시작해 16일 남자 슈퍼 단체 라지힐로 마무리된다.

/뉴시스



스키점프 도멘 프레우츠



스키점프 니카 프레우츠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가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향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븐 커미스터리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 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중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종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서울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 쇼트트랙 김길리, 생애 첫 올림픽서 금빛 질주 도전

최민정과 여자 쇼트트랙 ‘쌍두마차’... 주 종목 1500m 금메달 유력 후보

###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타

한국 여자 쇼트트랙 ‘차세대 간판’ 김길리(성남시청)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금빛 사냥에 나선다.

김길리는 2023~2024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6차 대회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3개로 종합 랭킹 1위를 차지하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2월 하얼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김길리는 여자 1500m와 혼성 계주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2관왕을 달성했다. 1000m와 500m에서는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다.

김길리는 아시안게임 시상대 위에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간판스타 김도영의 세리머니를 따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동계올림픽 금메달 3개에 빛나는 최민정과 함께 여자 쇼트트랙 ‘쌍두마차’로 거듭난 김길리는 2024~2025시즌 월드컵 2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며 순항을 이어갔다.

2025~2026시즌에는 월드컵 1, 2차

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지 못했으나 3차 대회에 이어 4차 대회에서도 1500m를 제패했다.

김길리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치른 동계체전에서 여자 1000m와 혼성 2000m 계주, 여자 3000m 계주에서 우승하며 예열을 끝냈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쓸어 담은 김길리는 이제 가장 큰 무대인 올림픽에 초점을 맞춘다. 그가 올림픽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길리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주 종목인 여자 1500m뿐 아니라 1000m와 500m에서도 포디움에 오르겠다는 각오다.

그는 이달 초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서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기쁜 마음으로 쇼핑하고 싶다”고 웃어 보였다.

이어 “올림픽은 어릴 때부터 꿈꿔온 무대다. 한국 국가대표로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멋진 무대를 펼치고 오겠다”며 당차게 출사표를 던졌다.

쇼트트랙은 한국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으로 불리지만, 대표팀 전력이 우승을 예약할 정도로 압도적인 건 아니다.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 선수들의 기량이 발전하면서 세계 쇼트트랙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쇼트트랙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따라서 에이스 최민정과 함께 금메달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길리의 활약이 필수적이다. 또 이들의 책임감 역시 막중하다.

개인전뿐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김길리가 한국 쇼트트랙의 금맥 캐기에 앞장선다.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여자 3000m 계주 2연패를 달성했던 한국은 8년 만의 정상 탈환을 바라본다. 2022 베이징 대회에서는 네덜란드에 금메달을 내줬다.

아울러 베이징 대회 때 처음 채택된 혼성 2000m 계주에서 첫 메달 획득에 도전장을 내민다. 4년 전에는 터치 실수로 예선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뉴시스